

트럼프 특사, 젤렌스키와 종전 논의...영·프·독 참여

전날 푸틴 대통령 이어 연쇄 회동
영·프·독 국가안보보좌관 추가 회의
러·우크라, 사흘간 수도 공격 중단
정유시설·화물선 등은 계속 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가 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종전 논의를 이어갔다.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특사 스티브 윌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이날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종전안을 논의했다.

윌코프 특사는 오전을 포함해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담을 마친 뒤 “실질적이고 중요한 논의였고 매우 고무됐다”고 말했다. 쿠슈너 특사는 “방문이 새롭게 진전된 안으로 이어질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늦게 영국·프랑스·독일 국가안보보좌관들도 참여하는 추가 회의를 할 예정이다. 미 특사들이 키이우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 앞줄 오른쪽)이 6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 소피아 대성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사위 재러드 쿠슈너(앞줄 왼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UPI=연합뉴스

이다. 이들은 양국의 종전 논의를 중재해왔지만, 모스크바만 8회 방문하면서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측 입장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

을 받았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우리의 제안은 준비돼있으며 조율된 방식으로 실질

적, 현실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날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

美, 韓 ‘호르무즈 기여 검토’에 “자원 투입 기다리고 있다”

백악관 “韓, 중동 원유 주요 수입국”

국방부도 ‘동맹 기여’…방안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여네(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밝혔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나서서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적인(자산이나 병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이란전과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기억해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미국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도 일방적으로 돕기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미국이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거듭 압박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군사적 기여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외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야구는 9회부터라는데...日고교야구 폭염에 ‘7이닝제’ 도입 논란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고시엔 대회)에서 ‘7이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고교야구연맹은 매년 극심해지는 여름철 폭염에 대한 대책으로 9이닝까지 열리는 경기를 7이닝까지만 실시하는 ‘7이닝제’를 오는 2028년 8월 열리는 고시엔 대회에 도입하는 방안

을 고려 중이다.

연맹이 7이닝제 경기 방식을 고민하는 것은 매년 극심한 무더위가 계속되며 학생 선수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국 규모 고교야구 대회는 3월과 8월, 2차례 하교현 고시엔 야구장에서 열린다.

이 중 여름에 열리는 대회의 인기가 특히 높다. 무더위에도 경기장에는 관객들이 몰려 땀

하게 들어차고 방송에서 생중계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크다. 올해 대회가 108회째일 정도로 역사와 전통도 깊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이 이어지며 선수와 관객 모두 애를 먹고 있지만, 여름방학 기간 열리는 만큼 개최 일정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

논의와 관련해 고교야구계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가장 큰 이유는 7이닝제가 경기 자체의 흥

미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다.

올해 대회에서 준우승한 아오야기 히로후미겐 다이카사이 야구부 감독은 “(고교야구에는) 7회 이후의 드라마가 있다. 거기서 힘을내고버티고하는 재미가 있다”며 7이닝제에 반대했다.

다른 반대 논리는 7이닝제가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줄일 것이라는 걱정이다.

사카마키 노부유키 타쿠쇼쿠고교고 감독은 “야구는 3회마다 흐름이 바뀌는데 7이닝제는 이런 흐름을 망가뜨릴 것”이라며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유럽 최대은행 UBS

신입사원 채용요건 ‘AI 숙련도’ 추가

유럽 최대 은행인 UBS가 신입사원 채용요건으로 인공지능(AI) 숙련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BS는 2027년 글로벌 뱅킹 및 마켓 부문에서 일하려는 졸업생과 인턴들에게 AI를 활용해 ‘성과와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채용 면접에 AI 활용 능력과 관련한 질문이 추가될 것이며 이는 지원자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UBS가 신입사원들에게 AI 활용 능력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최초의 주요 금융기관 중 하나가 됐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재무분석, 리서치, 고객 프레젠테이션 준비 등 예전에는 직원들이 해온 일상적인 업무들에 AI 도구를 점점 더 많이 도입하는 가운데 나왔다.

스페인인 산탄데르 은행도 기업·투자은행 부문 일부 대졸자 채용 공고에서 “고급 AI 사용자를 찾고 있다”고 명시했다. /연합뉴스



철거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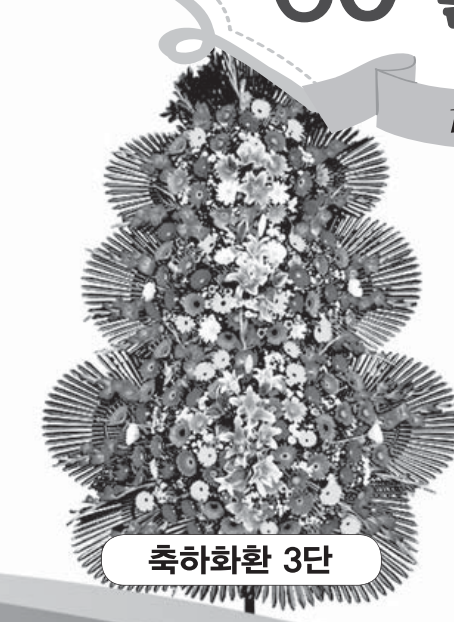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

폐업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